

목포대에 국내 최초 화합물반도체센터 구축

GaN 시장 규모 연평균 59%↑ 전망
전 과정 일괄처리 기술지원체계
우수 인력 양성·채용 연계 진행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합물반도체는 전자차, 5G·6G 통신,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올 디벨롭먼트(Yole Development)에 따르면 대표적 화합물반도체인 질화갈륨(GaN) 시장 규모는 2021년 1억2600만달러에서 2027년 20억달러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시장 전망 속에서 최근 목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구축했다.

/전남도

포대에 구축된 센터는 화합물반도체 설계·제작(외주)·후공정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일괄 처리하는 기술지원체계를 갖췄다.

제작은 국내외 화합물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윈세미(Winsemi)사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담당하며, 센터는 전국 대학과 기업에 시제품 제작과 후공정 과

정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웨이브피아(Wavepia) 등 10여개 화합물반도체 기업이 입주해 우주항공·통신 등 관련 반도체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기업 지원부터 센터 운영 전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대는 지난 3월 전국 11개 대학,

연구기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 했으며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후공정 인력양성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0명 이상의 교수와 함께 소재·공정설계·공정장비 등 맞춤형 교육을 학·석·박사, 실무인력에게 제공해 우수 인력을 지속 배출할 예정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전남도는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등 반도체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산업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합물반도체센터는 8월까지 구조 변경·기업 입주 절차를 거쳐 9월에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남도, 소재부품 中企에 기술 고도화 사업 지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주관
R&D·시제품 개발에 사업지 지원

경남도는 도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첨단 융복합기술 기반의 ▲소재부품 고급화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가 사업을 주관한다.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는

표면처리 분야 전문 기관으로 2019년 7월 개소해 20여 명의 연구인력과 첨단 연구장비를 갖추고 있다.

경남도는 기업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R&D)과 업종전환 또는 수요처 요구형 시제품 개발을 위해 각각 4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도내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참조해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는 28개사가 신청했고, 서류평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12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난 15일 신안군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와 업무협약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신안군, 우수한 자연환경 보호 나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협약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5월 15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문광선)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조항 내용은 신안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호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생태관광 활성화’, ‘현장 관리기관 간 업무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신안군은 전역이 유네스코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3,238㎢)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1,100㎢에 달하는 광활한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522㎢), 갯벌도립공원(162㎢), 습지보호지역(1,100㎢), 해양보호구역(70㎢) 등 다중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다도해의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전남)=양수영 기자

김해시, 10개 공공기관 청림 클러스터 구축

부정부패 타파 퍼포먼스 참여

경남 김해시는 관내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림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림 클러스터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조성하고 범시민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참여기관은 김해시, 김해시의회,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김해동부소방서, 김해서부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 등이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 청렴시책 공유와 청렴활동 공동 노력,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발굴과 이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 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공부문이 앞

장서는 청림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전 기관장들이 부정부패 타파 퍼포먼스에 참여해 각종 부정부패, 비리, 관행 타파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이를 각 기관에 전파해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한다.

김해시는 내외부 소통에 기반한 부패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익명 부패신고센터인 김해시 청렴특을 개설했다. 청렴특은 올해 3월 실시한 내부 직원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부패행위자 적발과 처벌 실효성 제고가 목적이다.

이달 말에는 지난 3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3년 김해시 청렴콘텐츠 공모전 심사를 마무리하고 채택된 청렴송과 청렴캐릭터는 청렴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영광군, ‘2024년 전남체전’ 개최

전남 최고의 스포츠 축제

전남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2024년 전남체전이 영광군에서 개최된다.

영광군은 지난 15일 완도군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62회 전남체전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회를 인수받고, 제63회 전남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영광에서 15년 만에 개최될 제63회 전남체전을 앞두고 올해 개최지인 완도군에 홍보단을 파견해 홍보물 배포, 전문 MC의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차기 개최지 영광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냈다.

특히 폐회식에서는 다음 개최지로 서 대회를 인수받고 영광군 홍보영

상을 상영해 전남도민의 축제의 장이 될 2024년 전남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제62회 전남체전이 완도군 체육회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열정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영광군에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개최될 제63회 전남체전에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63회 전남체전은“성공·행복체전, 안전·경제체전, 문화·관광체전, 화합·희망체전”을 기본목표로 2024년 4월 중 4일간 영광에서 개최된다.

/영광(전남)=양수영 기자

지역 이모저모

구례군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 점검

전남 구례군은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종사자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사항이다.

점검은 실무자 교육, 부서별 자체 점검, 전담 부서 순회 점검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지방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강연

부산시는 16일 오전 9시40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회발전특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지방 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을 개최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이전 기업에 과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개혁 등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한다.

이날 강연은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지방균형발전특위의 상근 자문위원을 역임한 허문구 박사가 맡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전시

꽃 정원 ‘치유의 숲’ 조성

꽃무릇, 수선화, 나무수국 등 꽃향기만 맡아도 힐링이 되는 ‘치유의 숲’이 대전에 조성된다.

대전시는 중구 무수동 대전 치유의 숲에 꽃무릇 6만4000포기, 수선화 3만2000포기, 나무수국 100그루, 거제수국 70포기 등을 심어 꽃 정원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노란꽃 수선화, 가을 무렵 파란 잎 사이에서 붉은 꽃을 피우는 꽃무릇은 오는 9~10월 핀다. 또, 나무수국과 거제수국은 6월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6월 이후 대전 치유의 숲이 향기 가득한 감성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경북도

4차산업혁명 선도 사업자 모집

경북도가 16일부터 한 달간 2023년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을 공개모집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6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최대 2년간 연간 1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이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1개 기술개발(R&D) 과제를 지원했다.

올해는 경북도의 중점 추진분야인 인공지능, 2차전지, 반도체, 메타버스, 수소연료, S MR(소형 모듈식 원자로) 등 분야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